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한 플라톤의 존재론과 변증법(dialektike) 개념*

김 혜 경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
 - 1) 전통적 해석
 - 2) 변증법 규정 - 본문으로부터의 토론
 - 3) 분석의 방법을 변증법으로부터 떼어 내려는 해석
3. 변증법과 존재론의 관계
 - 1) 〈소피스트〉해석의 새로운 경향
 - 2) '존재론'에 대한 태도 - 오원과 라일
4. 변증법 - 체계적 방법을 통한 인식

참 고 문 헌

1. 시작하는 말

이 글의 출발점은 우리가 <소피스트>편을 '방법'에 대한 플라톤의 반성으로부터 파악 할 때 이 곳의 논의 속에 배어 있는 저자의 주된 관심이 보다 잘 해명될 것이며 일련의 플라톤 저작 속에서의 <소피스트>편의 자리도 보다 잘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다. 본문이 진리 탐구의 방법, 철학자의 길로 소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변증법에 관한 진술이 그것이 다루어지는 문맥에 형상에 관한 문제, 좀더 구체적으로는 형상들의 결합을 논의의 중앙에 놓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단의 (혹은 현재 다수의)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을 다루면서, 또 가장 큰 형상들(megista gene)를 통한 논의를 다루면서,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폭넓은 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온 형상론이라는 이론을 자신들의 해석에서 배제하거나 더 나아가 이런 배제가 해석자 임의의 것이 아니며 플라톤도 양자의 관계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은 <소피스트>편 해석에 하나의 큰 경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20세기 초·중반 영국의 언어분석철학이라는 새 전통의 영향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이 해석 경향의 동기를 요약한다면 경제성의 원리실현, 또는 형이상학 제거주의가 될 것이다.

*) 본고는 대우 학술재단의 post graduate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쓰여졌음을 밝힌다.

이 해석 경향에 대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슈텐첼(J. Stenzel)로 대표되는 해석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전통적 해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해석의 기본적인 의도는 형상들의 결합, 변증법 개념을 다루되 <소피스트>편 전체 속에서 이들의 위치를 확정하자는 것으로 대변될 것이다. 이 입장은 형이상학 제거주의의 영향권 속에 있는 분석가들에 비해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변증술을 통하여 실제의 구조가 (그것이 어떻게 구축되든) 드러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해석들이 변증술, 형상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존재론'이 생각하는 실재(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모델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을 잡아내려 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이에 관한 선입견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고 이것을 이해의 자료로 삼는 많은 경우, 이로 인해 플라톤의 입장이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굴절을 겪을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과제의 하나이다.

2.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

플라톤 대화편들을 방법의 관점으로부터 구별짓는다면 <파에드로스>를 비롯하여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정치가>, <필레보스> 등은 방법에 관한 이론 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소위 방법론적 대화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많은 연구서들이 지적하고 있듯 궁정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제에 대한 무지를 확인하거나 (누구의 것이었든) 제시된 입장의 논박(elenchos)으로 끝나는 초기 대화편들에 비해 중기 이후의 대화편들은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초기대화편이 주로 특수한 대상, 형상에 관해 묻는데 대해 중기 이후 후기로 갈수록 형상 일반 내지 형상과 개물, 형상들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물음이 대화의 중심적인 물음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와 함께 이를 대답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고찰하는 일 또한 중요해진다.

학문의 방법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후의 여러 철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결코 낯설지 않은 것으로, 데카르트처럼 방법의 확립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데카르트와 플라톤의 '방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은 그가 생각한 모델과학의 -대수학, 기하학 등-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규제하는 규칙으로서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이성을 사용할 때 이를 정확히 지키기만 한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연역체계에 대한 그의 이상에 걸맞게 확실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자는 기본생각이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¹⁾ 확실히 데카르트가 생각한 출발점, 방법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한 고려보다는 탐구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일차적이고 더 중요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능

1) R. Descartes, *Discourse on the Method*, part II,
Rules, rule II, IV, V, VI, VII

력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혼란을 거듭해 왔던 것이고 따라서 우리를 지도할 제대로 된 방법을 성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학문은 크게 진보할 것이다. 데카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불확실한 것에서 시작한 모든 것은 결코 확실한 것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플라톤은 내가 또는 대화자들이 지금 논의 속에서 틀림없이 옳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걸지 않아도, 또 항상 확실한 논의만 이끌고 미심쩍은 얘기는 논의 속으로 끌여들여서는 안된다는 부담을 지지않아도 좋았다. 이런 태도는 그가 채택한 대화 (dialogos)라는 상황으로부터 견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지식’이라는 목표가 그에게 없거나 약한 것은 아니다. 대화의 출발은 개연적인 것, 정당성이 아직 입증되지 못한 의견의 수준이다. 여러 대화의 중간 중간에 이들의 의도가 대화자들간에 합의하는 의견의 도출에 있음이 시사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궁극목표가 데카르트가 목표로 하는 것, 혹은 지적 탐구 일반의 목표와 다를 수 없다. 우연성, 둘발성의 요인을 피할 수 없는 대화라는 상황은 잘 짜여진 체계에 의한 사유나 연역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이 점이 대화를 통한 탐구 자체의 지위를 열등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플라톤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말만의 일치가 아닌 사태, 대상에 대한 체계 있는 파악에 이르고자 했고²⁾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제시되어 그 자체가 진지하게 탐구되었던 것이 바로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적용은 우연성의 요소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대화 상황에 질서있는 탐구의 절차를 도입하는 걸 의미한다. 질서있는 탐구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세계, 대상이 질서를 갖춘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대상인식은 그러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의 질서를 유지하는 혹은 바로 그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방법론은 단순한 출발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의 출발점으로서의 명증적인 것에 대한 데카르트의 집착이 회의론으로 귀착한 반면 후기 대화편들에서 변증법적 방법을 주제화하는 플라톤에게 방법은 탐구의 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탐구의 목표처럼 보이기도 한다.³⁾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도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얘기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의 변증술은 가설(hypothesis)의 방법과 분석(diairesis) 및 종합(synagoge)의 방법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파에돈>, <국가> 등에 주로 가설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면 분석과 종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변증술은 <파에드로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1) 전통적 해석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변증술의 요소로 직접 소개하는 <파에드로스>의 논의를 찾아보자.⁴⁾ 광기(mania)에 대한 구분을 진행하며 이를 두개의 형태(eide duo)로, 다시 네 부분

2) 217c-218d 참고

3) 근세이후 많은 경우 (과학) 방법론이 논의의 앞, 초기저술의 자리에 오는데 비해 플라톤은 변증법에 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후기저술에서 하고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4) <파에드로스> 265a-277b

(tettara mere)으로 나누는 소크라테스는 변증술자(dialektikos)라는 명예로운 명칭에 합당한 자는 ‘하나를 그리고 여럿을 볼 수 있는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눔과 모음에 의해 가능함을 설명한다.

‘흩어져있는 여럿을, 이들 모두를 함께 보면서, 하나의 이데아로 이끄는 것’이 모음이다. 모음의 목적은 각각을 규정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눔이란 ‘서투른 푸주한의 방식대로 해서 부분 부분 부숴뜨리지 않고 형상에 따라 자연적인 마디로 자를 줄 아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문에서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변증술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분석과 종합은 진지한 사유의 과정을 표현한다. 이에 비해 서투른 푸주한은 관절부위를 정확히 가려내어 자르지 못하고 마디가 아닌 곳에 무리하게 칼을 대어 조각 조각 으스러뜨리고 만다. 즉 서툴다는 것은 어디가 잘 잘리게끔 되어있는 관절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반대로 훌륭한 푸주한은 잘라야 할 것의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이 예는 분석과 종합의 관계, 분석의 성격에 관한 생각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파에드로스>는 분석과 종합으로 이루어진 변증술의 방법이 정식으로 서술되는 첫 대화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 이후에 보여지는 플라톤의 설명들을 다룰 때에는 <파에드로스>편에서의 설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눔과 모음, 분석과 종합이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모으는가? 헥포스(Hackforth)⁵⁾는 종합의 과정에서 얘기된 ‘(흩어져있는)여럿-하나의 이데아’는 개별 사물들과 형상, 형상 대 형상의 두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면 분석은 형상 세계내에서의 일이며 더이상 조개어지지 않는 형상(infima species, atmetos eide)에 도달하면 멈추는(277b)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해석은 나눔과 모음의 방법을 변증술 안에다 위치지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것은 모음은 형상과 개물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 나눔은 형상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해석은 변증법에 대한 통일적인 시각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나눔과 모음을 문자 그대로 별개의 두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이 견해에 주의해야 한다. 헥포스는 플라톤이 분석과 종합의 방법 만큼은 충분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말하나(p.136) 양자를 변증법의 두 요소라고 설명하는 파에드로스편에서도, 또 변증법적 방법에 관심을 두는 다른 후기 대화편들에서도 종합의 과정에 관한 플라톤의 설명은 결코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파에드로스>를 제외하고 <소피스트>나 <정치가>에서 종합의 과정과 변증술의 관계는 주제적으로 얘기되지도 않는다. <파에드로스>의 설명은 다른 곳에서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로스(D.Ross)는 플라톤의 강조점이 분석의 과정에 있었음을 주목하고 이것은 종합이 분석의 예비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합은 특정한 개념을 정의내리거나 이데아들의 관계를 연구하려 할 때 그 첫 단계로서, 논의하려는 개념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다 넓은 외연의 개념(genus)을 선택할 때 개입하는 것이고 여러 대화편에서 이 과정은 토론없이 전제되곤 했다는게 그의 입장이다.⁶⁾ <소피스트>의 경우, 본문에 등장하는 낚시꾼이나 소피

5) Plato's *Phaedrus*

6) Plato's *Theory of Ideas*, pp.104-119

스트의 규정을 위한 분석에서 피정의개념은 모두 '기술을 가진 자(technikos)'라는 유개념에 속한다고 전제되곤 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함으로써 여럿(종개념)을 하나(유개념)로 이끄는 종합의 과정은 따로 논의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남는 과제는 유개념으로부터 종개념으로의 세분(subdivision)이 된다. <소피스트> 253이하의 변증법 규정 및 그의 실행이 <파에드로스>의 규정과 다른 것, 그것이 주로 '분석'의 과정으로 서술된 것은 로스에 의해 이상과 같이 설명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혹은 무언가를 나눌 때 우리는 왜 어떤 x(비록 미확정의 것이지만)를 나누느냐라고 묻게 된다. 그런데 일정한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나눔이라면 바로 이 이유만으로도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규정이 나눔의 시작에서 또 나눔이 진행되면서 있게 마련이다. 목적이 있는 분석은 그 목적과 관련하여 분석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한에서 분석될 것에 대한 규정적 파악이 분석의 과정과 함께 한다. 분석의 과정은 논리적으로는 갈라지는 것의 이름을 붙이는 일, 이름에 따라 진행되는 (실제의)자르기, 잘라진 것들을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합하기와 같은 일련의 절차로 구분할 수도 있다. 후기 대화편에서 플라톤이 분석만을 강조하고 종합의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는 견해는, 만일 그것이 분석과 종합을 별개의 과정으로 독립시켜 놓음으로써 갖게 된 것이라면, 상당한 제한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분석이 수행될 때면 분석된 것들의 종합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야 옳다. 본문에서 분석의 절차가 다 진행된 뒤에 그 결과를 모으는 종합의 절차를 따로 뽑아 서술하고 있느냐는 별로 핵심적인 물음이 되지 못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글은 다른 독서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증법에 관한 규정을 분해하여 어느 구절이 나눔과 모음의 어떤 절차를 서술하고 있는지를 지정하고자 했던 기존해석들의 부담을 벗어버리자는 것이다. 나눔과 모음의 방법은 구별가능한 계기이기는 하지만 각자가 독립적인 방식으로 변증술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건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좀더 논의하기로 하자.

플라톤의 변증법 이론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들은 그가 변증법을 서술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면서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보이는가에 주목한다. 이 물음은 <국가> 7권에서 변증법이 무전제의 출발점, 그곳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성립하는 일종의 제일 원리를 찾아나가는 길로 서술되었던 것과 후기 대화편들에서 등장하는 변증법 규정이 비교될 때에도 곧잘 제기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해석들을 간추리자. 이와 관련해서는 변증법이 설명되는 중심어의 변화 - '가설' -> '나눔'-를 제시하며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말하는 좀 노슨한 설명이 있는가 하면⁷⁾ 후기 대화편에서의 변증법적 방법은 선의 이데아라는 제일원칙으로부터 연역에 의해 모든 진리를 도출하려 하는 <국가>의 방법과 달리 유·종의 도표로 이루어진 지식에 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독표를 갖는다고 얘기되기도 한다.⁸⁾ 로스는 더 나아가 <파에드로스>를 포함, 후기 대화편이 서술하는 변증법은 이데아들사이에서 존재하는 주장·부인가능성의 관계와 유·종의 관계를 추적한다는 실현가능한 독표를 세운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 자신은 분명

7) R. Robinson, *Plato's Earlier Dialectic*, pp.61-92.

8) Hackforth, *Plato's Phaedrus* pp. 134-135

히 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로스는 변증법의 새로운 두 목표 중 첫번째 것은 <소피스트>편, 형상들의 결합과 관련된 '가장 큰 형상들(megista gene)'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두번째 목표는 분석의 방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소피스트>편에 대한 정통적 해석자 가운데 하나인 슈텐첼이 제시한 변증법과 분석의 관계에 관한 해석⁹⁾은 찬반의 두 방향 모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슈텐첼은 본문 253d - e 부근이 변증술자에 대한 충실한 규정을 목표로 한다고 보아 이를 입증하여 한다.

이같은 목표는 본문에서 서술된 분석의 방법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기본입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분석(나눔)이 정의를 이끌어낸다고 플라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253d1 - 3과 253d9 - e2는 변증술의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규정 사이에 들어있는 4부분으로 나뉘는 난해한 구절은 분석의 작업을 형상들에 대해 수행할 때 이것이 내보일 결과를 미리 시사한다. 그리고 이 분석은 254d-257a의 'megista gene' 부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도 또 하나 <소피스트>의 주제, 플라톤의 관심은 비존재의 아포리아가 제기되는 문맥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가 새롭게 발견한 개념인 비존재와 동치로서의 다른(heteron)을 다루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슈텐첼이 행하는 분석에 대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분석의 기저에 놓이는 형상으로서 다른의 형상에 강조점을 두며 이루어지리라고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2) 변증법 규정 - 본문으로부터의 토론

<소피스트>에서 변증법은 세 단계로 조명된다. 첫단계는 변증법의 도입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련의 유비와 예를 통해 변증법의 기능이 시사되는 부분이다(251a-253c). 두번째 단계에서 변증법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내려진다(253d-254b). 마지막 단계는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다(254b-257a).

이곳에서 변증법은 형상들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됨으로써 논의의 전면에 등장했다. '형상들의 결합'은 동일한 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정식화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한 문제이다.¹⁰⁾ 여러 이름의 예는 동일한 것, 하나로서의 사람에 대해 붙는 다양한 색깔, 형태, 크기, 훌륭함과 결합 등에 대한 이름이다. 엘레아의 이방인은 각각을 하나로 놓으면서도 다시 이것을 여럿으로,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사태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소피스트>편은 이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놓았다. 여럿이 하나이고 하나가 여럿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늦배운 자들(opsimathes)의 주장도 이런 결합의 문제¹¹⁾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물리쳐질 것이다. 결합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은 이 주장이 갖는 자기 반박성으로 인해 자멸할 수 밖

9)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S. 62

- 71 참고.

10) "그러면 어떤 방식을 따라(kath'ontina pote tropon) 우리가 동일한 그것을 매번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지 설명해보자."(251a5-6)

11) 이 때 본문은 존재(peri ousias)의 결합을 말하고 있다.

에 없고 모든 것이 모든 것과 결합한다는 주장은 이 주장이 가져오는 전혀 불가능한 귀결로 인해 역시 포기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난다.¹²⁾ 결합에 대해 남겨진 논리적 가능성은 어떤 것들은 결합하고 어떤 것들은 결합하지 않는다는 대안이 유일하며 본문은 이 유일한 대안을 올바른 대답으로 제안하고 있다. 형상들 가운데 일부는 결합하고 다른 일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화 논증을 독립적으로 가지지는 못하나 이것을 검토할 방법을 찾는 길잡이로서 문자(*ta grammata*)와 소리(*hoi phthoggoi*)의 예를 등장시켜 문법(*grammatike*)과 음악(*mousike*)이라는 기술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 예의 등장으로 탐구자들은 앞으로의 논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을 구별되는 계기로 갖게 된다. 모음(*phoneenta*)이 그것이다. 모음은 모든 다른 문자들을 결합시킨다. 모음에 의해 다른 글자, 자음들이 연결될 때 의미있는 말이 성립된다.¹³⁾ 형상들의 결합도 문자들의 예에서 발견한 모음 기능을 하는 형상 및 문법술과 같은 기술을 보이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형상들의 관계 맷음의 방식에 관한 암으로서의 기술은(253c1-3) 첫째, 문자들의 경우에서 모음이 하는 것과 같은 결합의 기능을 형상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둘째, 형상들의 분리에 있어 전체에 걸친 분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변증술의 일이다. 변증법적 지식(*dialektike epistme*)은¹⁴⁾

A. “형상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결코 동일한 형상을 다른것으로 생각 하지도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 (*to kata gene diaireisthai kai mete tauton eidos heteron hegesasthai heteron on tauton ; 253d1-3*) ”이다.

B. 변증법적 지식을 가진 자, 즉 변증법적 지식의 제 기능을 수행할 줄 아는 자는 (1)-(4)를 제대로 식별해낸다(*hikanos diaisthanetai*).

(1) 그들 각각은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럿에 전적으로 펼쳐있는 하나의 이데아(*mian idean dia pollon , henos hekastou keimenou choris, pante diatetamene*)

(2) 밖으로부터 하나에 의해 둘러싸인 서로서로 다른 여럿

(*kai pollas heteras allelon hypo mias eksoten periechomenas*)

/ (3) 여러 전체들에 걸쳐 하나 속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

(*kai mian au di'holon pollon en henis synemmenen*)

(4) 전적으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여럿

(*kai pollas choris pante diorismenai*)

C. 왜냐하면 변증법적 지식이란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12) 운동 자체와 정지 자체의 결합 마저 허용함으로써이다.

13) ‘산’이란 말은 모음 ‘ㅏ’의 결합기능에 의해 유의미한 단어가 되었다. ‘ㅅ ㄴ’ 이런 병렬은 모음 기능을 이해하는 결합의 테크네의 결여로 비롯된 잘못 시도된 결합이다. ‘ㅅ’, ‘ㄴ’은 ‘느’, ‘ㅣ’ 등의 결합끈(*desmos*)으로 연결됨으로써 제대로 결합될 수 있고 이것이 문법의 기능이다.

14) 본문의 짧은 문장들은 어의 전달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직역을 했다. 단, 그 연결은 본문과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편집이 가해진 것인데 본문의 문장단락들간의 관계설정은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5) 각각의 것들이 어떤 점에서 결합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결합할 수 없는지를 종에 따라 판단할 줄 아는 것이다 (*he te koinonein hekasta dynatai kai ope me, diakrinein kata genos epistasthai*).

형상들의 관계에 관하여, 그들의 결합방식을 A와 같이 보여주는 것은 철학자에게 속하는 일이다. 애초의 소피스트를 찾으려는 시도가 대화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새에 철학자의 발견이라는 의도치 않았던¹⁵⁾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엘레아의 이방인은 A와 B의 변증법규정을 얘기한 후 소피스트와 철학자를 대조한다. 소피스트와 철학자는 우리가 이들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이 때 양자에게서 발견되는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다. 소피스트는 비존재의 어두움으로 달아나 버려 그곳의 어두움으로 인해 그를 알아내기 어려운 반면,¹⁶⁾ 철학자는 항상 이성적 추론으로써 존재의 이데아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장소의 밝음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15)

변증술, 변증법적 지식이 ‘형상의 결합’과 관련하여 규정된 후, 본문(254b-257a)은 이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를 위해 모든 형상들이 아니라 몇몇의 형상들을 선택해서, 선택된 형상들 각각의 본성(*poia hekasta estin*)과 이들 상호간의 결합의 능력에 관해(*koinonias allelon pos echei dynamenos*) 탐구하기로 한다. 여기에 선택된 형상들이 ‘가장 큰 형상들’(*ton megiston legomenon, megista ton genon*)이다. 이제 탐구될 형상들은 상호결합의 측면이 그 자신의 본성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이 말은 이들의 결합이 각각의 본성을 파괴하거나 본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중기대화편에서 플라톤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형상을 지칭하면서 ‘그 자체로서’, ‘auto to kath’ hauto’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소피스트>에는 형상 각각을 고립시켜서 아니라 상호 간의 관계맺음·결합을 보이는 일이 형상의 본성을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시사되고 있다.

이제 존재에 관한 이전의 이론들을 검토·비판하면서 거론되었던 존재 자체, 정지, 운동이 먼저 *megista gene*로서 소개되고, 여기에 같음과 다름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다섯 형상이 제시되면서 이들의 결합관계가 분석된다.

변증법을 규정하면서 형상의 본성을 그것들의 결합관계, 결합능력의 측면에서 논의할 때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결합한다”, “섞인다”, “공유한다”, “받아들인다” 등으로 표현된 관계가 관계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제 삼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어떤 새로운 성격과 같은 것을 첨가시키지 않는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조금만 더 밀고나간다면, 이같이 각각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결합, 그와 동시에 특정한 결합의 경향이 결합하는 것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결합을 부각시킴으로써¹⁷⁾ 플라톤은

15) 그러나 (테아이테토스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대화가 이리로 진행된 것이 문자 그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앞선 논의들과 변증법에 관한 논의가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16) 'ho men apodidraskon eis ten tou me ontos skoteinoteta...' 254a4-6

17) 'ho de ge philosophos, te tou ontos aei dia logismonpros keimenos idea, ...' 254a8-10

18) 'ta men erhelei summeignusthai, ta de me' 와 같은 표현이 본문에서 결합관계를 얘기하며

<소피스트> 편을 통해 모종의 결합가능성을, 관계맺는 형상 각각의 본성으로서 자리잡아 주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51e8이하의, 결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¹⁹⁾에 대한 논박이 다음과 같이 행해진 것이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운동도 그리고 정지도 결코 존재에 참여할 수 없지 않은가?

-바로 그렇습니다.

존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

만일 섞임이 없다면 그 어떤 방식을 따라서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 *megista gene*가 탐구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어떤 이유로 본문의 다섯 형상들에게 가장 크다는 이름이 붙는지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 정지, 존재, 같음, 다른이 가장 큰 형상으로 제시된 것을 이 글의 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보겠다. 먼저 바로 앞의 문맥과 연결해 본다면 문자의 비유에서 모음이 했던 것 같은 역할을 하는 형상을 들어서 이를 가장 큰 형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미 대화자들에 의해 인정된 결합방식은 모든 형상들이 모든 형상들과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형상들은 서로 결합하고 반면 어떤 다른 형상들은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결합이었으므로 *megista gene*부분이 탐구의 훌륭한 본이 되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즉, 어떤 것과는 결합하면서 다른 어떤 것과는 결합하지 않는 그러한 형상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결합관계도 마땅히 보여주어야 한다. *megista gene* 논의의 진행은 운동과 정지 두 형상이 서로에 대해 또 각각이 갖는 결합관계를 검토하는 형식을 취해 다른 큰 형상들을 논의에 끌어들인다. 존재(to on), 정지(stasis), 운동(kinesis)의 세 형상은 플라톤이 엘레아의 이방인을 통해 플라톤이전 철학이론을 반성할때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잡힌 것들이다. 실제로 존재론적 물음을 물으면서 ‘운동’ 또는 ‘변화’, 그것에 대립하는 ‘정지’는 희랍자연철학자들의 이론내용과 밀접하며 이 개념들은 이것으로써 여러 이론을 분류, 포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운동과 정지 두 형상은 당시의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함께 논의 내부적으로는 각각은 어떤 다른 형상들과 결합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와는 결합하지 않는 형상의 대표로서 가장 큰 형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소피스트>에서 얘기하는 결합이 결합하는 것들의 본성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신을 유지하는 결합이라는 점을 말했다. 우리는 형상 ‘같음(tauton)’과 ‘다름(heteron)’의 도입을 이같은 결합의 특성으로부터 설명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같음이라는 형상의 기본적 특성은 구분되는 둘 이상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은 자신 이외의 것과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이들[운동, 정지, 존재의 세 형상]의 각각은 다른 두 형상과 다르며 반면 자기자신과는 같

의식적으로, 여러번 사용되고 있다.

19) ‘어떤 것에게도 어떤 것과의 어떤 결합의 능력을 갖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medeni meden medemian dynamin echein koinonias eis meden)’

다.²⁰⁾

본문이 제시하는 결합은 어떤 것과 결합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동일성을, 결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것과는 이질성을 유지하는 결합인데 이를 플라톤식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형상들은 '같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같고 '다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것과) 다르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같음과 다름이라는 형상이 있음으로해서 어떤 것과의 결합이든 결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 두 형상으로부터 성립하는 관계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한편 이 두 형상 자신도 이런 관계속에 들어 있다. '같음'은 그 자신에 대해 동일성을 확보하며 그 밖의 형상들에 대해서는 구별된다, 즉 다르다. 한편 '다름' 그 자신은 자신과 같고 다른 것들과 다르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드는,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달라야 할, 형상 다름에 정작 동일성이 성립하는 사태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²¹⁾ 이 사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은 이때 형상 다름이 그 자신과 같다는 말은 '다름'의 성격을 한결음 뒤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같음'과 '다름'의 예를 들 때, 이들이 서로에 대해 또 자신에 대해 사용된다고 함으로써 본문 251a5-c2에서 이미 반박된 *opsimathes*의 주장으로 지금의 논의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불필요하다. *opsimathes*들은 일반적인 술어사용의 가능성은 부인하거나 언어활동을 명명의 기능으로 한정하는 입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텐데, "다름이 다르다", "다름이 같다"고 할 때 '같음'과 '다름'은 그것이 주어부나 술어부의 자리에 올 때 각각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되고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 곳의 논의에는 이러한 구분이 이미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술어의 자리에 온 '같음', '다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그것이 같음 또는 다름일 경우에도) (자기)동일성과 (타자와의)구별이 성립해야 그것의 정체 유지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음과 다름이라는 형상이 가장 큰 형상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양 방향에서 설명될 수 있다.

253d1-e3의 변증법 규정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정당한가?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 형상들간의 결합의 원인 및 분리의 원인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대화자들의 예상(253b9-c3)에 힘입어 많은 해석가들은 본문(앞에서 A와 B로 묶어 놓은 부분)을 분석하되 i) 텍스트의 어느 구절이 변증법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 알려진 나눔과 모음의 어떤 과정을 각각 지시하고 있는가 ii) 어느 구절로써 바로 뒤에서 그 예로 검토하고 있는 *megista gene* 중 어떤 형상을 시사하는가에 해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 물음을 다루자. 먼저 i)에 대해서 대답해 보자. 이미 이 글을 시작하면서 밝혔듯이 필자는 나눔과 모음을 서로에 대해 독립적인 두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1)에서 '떨어져 있는 여럿에 떨쳐있는 하나의 이데아'를 식별해낸다는 변증법의 과제는 그 표현상 종합의 단계를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반면 (4)의 '전적으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여럿'을 식별해내는 과정은 분석의 작업을 지칭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나눔

20) 254d9-10

21) 이것은 플라톤의 '형상'이 자기술어적(self-predicative)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과도 상관있다.

22) "'같음'이 다르다"는 귀결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과 모음의 방법은 변증법을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땐 나눔을, 다른 때에는 모음을 각각 사용함으로써 형상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상이 되었든 그것에 대해 적절히-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형상, 전체속에서의 관련을-파악하려면 분석과 종합을 동시에 포함하는 변증법적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은 이미 <파에드로스>에서의 언급에서도 비교적 분명하다. 즉 이곳에서의 모음과 나눔에 대한 규정에서 우리는 양자의 상호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흩어져 있는 여럿을, 이들 모두를 함께 보면서, 하나의 이데아로 이끄는 것’이라는 설명에서 하나의 이데아로 이끄는 과정이 그것으로 이끌려가는 것들을 단지 ‘흩어져 있음’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각각의 것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각각의 것들이 서로에 대해 어느 점에서 구분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에로 이끌고감’의 성공적인 수행은 충족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절(자연적 마디)을 따라 자를’이라는 나눔의 규정에서도 잘라질 것이 전체에서 어떤 위치의 것인지 따라서 전체에 대한 조망이 분석의 조건의 하나라는 것이 드러난다. 전체, 전체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서 관절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피스트>로 되돌아와서, 변증법에 관한 규정(앞에 A로 인용해 놓은 것)에서부터 이 대화편은 나눔의 방법만을 변증법의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결론, 혹은 나눔과 모음이 별개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이다. ‘형상에 따라 나누는 것(to kata gene diaireisthai)’이 곧장 결합(koinonein)에 관련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이제 논의한 이유때문이다.

두번째 물음, 다섯 개의 가장 큰 형상들과 변증법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253d5-9, 이 글의 B (1)-(4))을 어떻게 연결지를에 대해 논의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증법의 작업에 대한 본문의 규정이 형상들의 결합 또는 분리의 원인이 되는 형상을 시사하고 이것이 그 뒤의 가장 큰 형상들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리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종전의 많은 해석들이 이런 예상속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결합의 원인으로서 가장 큰 형상들 가운데서 ‘존재’가 (1)의 ‘하나의 이데아(mia idea)’, (2)의 ‘하나에 의해(hypo mias)’에서의 ‘하나’로써 지시되고 있으며 ‘다름’은 (3)에서 여럿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로써 분리의 원인 노릇을 한다고 해석되곤 했다. 또 이 구절이 하나와 여럿의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2), (4)의 ‘여럿’은 ‘하나’에 의해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형상들을 보여준다고 얘기된다.²³⁾ 본문 규정을 검토하면서 이 해석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저 (1), (2)의 ‘하나의 이데아’를 결합의 원인이 되는 형상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2)의 구절을 운동과 정지에 덧붙여 존재를 도입하는 250b6-7의 표현과²⁴⁾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형상 존재는 -다른

23) A.Gomez-Lobo,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Sophist 253d1-e2”, p.39 “I contend then that at T2 and T4 in our text we have a reference to many A Forms in opposition to which there is at T1 one Form: Being, and at T3 a different one: Not-being” 이 논문에서 가리키는 T1-4는 우리가 B(1)-(4)로 표기한 같은 부분이다. 고메즈로보의 이 해석은 뒷장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F.M.Cornford, Plato’s Theory of Knowledge, p.261-262

24) “그러므로 이것들 외에도 정지와 운동을 그것으로써(hyp’ekeinou) 둘러싸는(periechomenen)

*megista gene*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것들 보다 넓은 외연의(혹은 가장 큰) 형상처럼 생각되기 쉽다. (1), (2)의 구절을 함께 묶어 보았듯이 (3), (4)를 연결할 때 형상 '다름'이 분리의 원인으로서 (3)에서 또 다른 '하나'로 이야기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고 이 다른 해석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우리의 논지에 더 적절한 것 같다.

형식적으로 253d5-9는 (1)과 (2), (3)과(4)가 두번의 "하나-여럿"의 대비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두 그룹이 내용적으로도 구별되는 것을 각기 담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게끔 한다. 또한 (3)에 부사 'au'가 사용된 점은 이곳에서 앞 구절과는 다른 형상이 언급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해석의 결정 요소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다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곳에서 하나와 여럿의 대비는 매 구절마다 나타나며 각 구절마다에는 어떤 관점에서 그 관계가 표현되고 있느냐의 차이만이 보인다. (1)에서 *mia idea*가 그것의 포괄성, 편재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polla*에 대해서는 그것들만으로는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이때 *mia idea*로써 우리는 존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존재만으로 한정해서는 않는다. 같음과 다름도 여럿 모두에(*pante*) 펼쳐있는 하나의 이데아이다. 존재, 같음, 다름 각각은 모든 형상들에 편재적인 '하나의 이데아'들이며 이것이 이들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2)는 하나와 여럿의 관계를 여럿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말하고 있다. *polla*에 대해 이 구절은 두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가 밖으로부터 들려 싸고 있다는 점과 이들 여럿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럿들 간의 확실한 구분이 이들 각각과 결합하는 하나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로써 존재만이 아니라 같음과 다름도 함께 지시되어야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결합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다. (3)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여럿을 *holon pollon*으로 말한 것은 여럿 각각이 이루는 단일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²⁹ *holon*은 *en hen*과 연결되며 여럿이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동일성을 가능케하는 같음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동일성은 다른 것과의 다름을 동시에 함축하며 다름과의 제대로 된 결합은 단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깨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3)의 *mia*는 형상 다름을 지칭하기도 한다. 결합의 원인은 단지 형상 존재이며 분리의 원인은 형상 다름이라는 주장은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

3) 분석의 방법을 변증법으로부터 떼어 내려는 해석

슈滕첼의 해석은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이 (최소한 일련의 후기 대화편에서는)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통약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것으로 존재를 영혼안에 놓겠지?"

- 25) (3)이 분리의 원인으로서 다름을 지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holon pollon*을 해석하면서, 본문의 뒤에서 이루어진 다름에 대한 분석을 수용하여 다름이 동일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X에 대해 말해지는 전체(*holon*)를 "X - X아닌 것"으로 놓고 이 두 부분이 다른 원인이 각각이 결합하는 형상 다름이며 *mian*으로써 바로 다름을 지시한다고 본다.

슈텐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본문의 253d - 257a 부분을 '변증법'과 '분석'이라는 양 개념을 논의의 기본틀로 삼아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 다른 입장을 갖는 해석을 다뤄보자.

고메즈로보의 해석은 슈텐첼(슈텐첼류)의 해석에 대한 직접적 반론으로 성립했고 기본적으로 253d - e가 변증술자에 대한, 혹은 그의 고유의 과제에 대한 규정이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를 거부한다. 만일 이 구절이 슈텐첼의 얘기대로 변증술자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것이 '분석'에 대한 설명 노릇도 하리라는 점은 확실하나, 전자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후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의 주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형상들의 분류(classification)와 확인(identification)은 별개의 작업이라는 생각이다. 플라톤이 논의하는 '나눔'은 단지 형상들의 분류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음은 이미 앞절들에서 밝혔다.

그는 문제되고 있는 253d를 올바로 해석하려면, 슈텐첼 등과 같이 대화편의 맨처음과 끝에서 진행된 분석의 방법을 이 곳에 연결시켜 이 부분이 분석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253d 바로 전후의 문맥을 연결지어 볼 것을 추천한다.²⁶⁾ 이런 입장에서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변증술자의 과제는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는 형상들의 짹(non-pervasive Forms)을 확인하는 것과 그런 형상들의 결합 혹은 분리의 원인이 되는 형상인 다른 형상들을 조작하는 모종의 형상(모음과 같은 형상, pervasive Forms)이 존재함을 증명해내는 일로 자리잡는다. 253d - e에서 플라톤이 한 작업은 형상들을 이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주로 megista gene 부분에서의 형상 '존재'와 형상 '다름'이 각각 결합과 분리의 원인임을 논증하는 일에 할애되며 이 때 형상 '운동'과 형상 '정지'는 포괄하는 형상인 '존재'와 '다름'에 의해 둘러싸이는 형상(non-pervasive Forms의 예)이라고 설명된다. 이 해석의 지침은 형상들의 결합을 논하되 megista gene 부분에 나오는 형상 '존재'를 "be"동사와 관련, 그것을 존재사로서의 의미는 배제하고 술어명사나 동사가 생략된 서술적 동사를 가리키며, 이에 상응하여 비존재라는 형상은 동일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이다. 비존재라는 이데아에는 형상 '존재'에 상응할 만한 (적극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본문은 이 개념을 형상 '다름'으로 묶어낸 것이다.²⁷⁾

이같은 해석은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성립한 것으로,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의 관계설정에 대한 이견과 해석에 있어서 존재론의 개입 거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자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미 밝혔다. 후자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존재론에 대한 거부는 본문의 논의를 술어 불이기(predication)의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술어 불이기의 문제는 '문장 만들기'라는 상황의 한 측면이다. 그런데 이 맥락에 관해 살펴보려면 먼저 그러한 맥락의 토대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해석을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트레바스키스(J.R.Trevaskis)의 해석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며 또 변증법과 분석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선명히 개진되고 있다. 이제 해석을 살펴보면 드러나겠지만 필

26) "Dialectic in the Sophist : A reply to Waletzki", pp.80-81

27)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Sophist 253d1-e2", PP 39ff.

자는 이 입장의 기본생각이 <소피스트> 해석사의 한 전통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 전통은 라일(G.Ryle)이나 오웬(G.E.L.Owen)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당한 세력을 지닌 해석으로 보인다. 그의 해석²⁸⁾을 분석하는 것은 해석사의 한 전통에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3. 변증법과 존재론의 관계

1) <소피스트> 해석의 새로운 경향

트레바스키스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변증법과 분석의 방법의 관계에 관해 지금까지는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이 논문은 후기 대화편의 일련의 텍스트를 근거로 양자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음을 보이고 플라톤 철학에서 ‘분석’의 의미를 재규정하면서 존재론적 문제와 분석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걸 밝히겠다.”²⁹⁾ 그의 적극적 주장은 ‘분석’의 방법은 존재론의 영역과 무관하며 분석이 행해지는 과정을 “훈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⁰⁾

먼저 분석의 방법과 변증법이 별개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논증을 보자. 253b-c에서 대화자들은 형상들의 결합에 관한 암으로서 변증술을 어떤 형상들이 결합하고 결합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소피스트를 찾으려다 우연히 철학자를 발견했다고 하며 253d이하에서 변증술을 철학자의 능력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이제 이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대화의 저 앞에서 실시된 소피스트를 찾으려는 여섯차례의 분석의 기술과는 분명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 만일 분석의 방법과 변증술이 동일한 것이라면 이미 여섯 번이나 분석의 방법을 사용했으면서 이제 변증술의 과정을 서술할 때 앞서 행한 분석을 언급하지 않을리 없는데도 이같은 언급이 없다는 것도 변증술과 분석이 무관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주장은 이런 것이다. 변증술은 253d-e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는데 변증술이란 개념들의 정확한 관계에 관한 지식, 개념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³¹⁾ 이것은 단순히 나누는 것, 본문 앞 뒤에서 행해진 분석의 방법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 예상되는 한 대답은

-
- 28) “The megista gene and the vowel analogy Plato”,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 29) 이때 ‘존재론’이란 유(genus) - 종(species)의 체계적 연결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증법, 분석의 방법과 함께 존재론을 이야기 할 때 많은 경우 ‘존재론’이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 30) 이 입장은 라일의 견해와 일치하는 입장이다. 그는 분석은 이성적 추론도, 변증술도 아니며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졌던 예비교육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라일은 논증의 스타일과 구조와 관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술 개념이 플라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입장을 평고 있다. *Plato's Progress* 제1장, 4장
 - 31) ‘genos’를 거의 전 경우에서 개념(concept)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번역을 택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를 논외로 하려는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분석이 이데아의 진짜 구조를 드러내는 일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대답이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플라톤이 특별히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애매한 용어가 지니고 있는 상이한 의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³²⁾ <소피스트>편에서 이 방법은 첫째, 제거의 과정(소피스트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의 기술들을 제외시키는 데에서 이루어진 과정일 것이다)을 서술하고 둘째, 애매한 용어의 의미를 뽑아내는 데에 사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석의 방법이 지니는 의미는 이 방법이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는데 있다. 즉 철학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방법이 이데아라는 철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불어진 길, 연습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장을 접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철학', '이데아'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점이다.

많은 <소피스트>의 독자들은 '이데아'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megista gene에 대한 본문의 논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앞에 소개한 해석노선에 따르면 본문에 등장한 존재와 비존재의 아포리아에 접근하는 길은 이 아포리아에 표현된 술어 불이기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열리고, 플라톤이 megista gene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설들도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역설의 해결(해체)만이 아니라, 역설처럼 보이는 참인 진술³³⁾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됨이 밝혀진다. 플라톤이 존재, 운동, 정지, 같음, 다른이라는 다섯개의 megista gene를 자기 논의에 사용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genos는 term으로 번역되며 플라톤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여 참인 진술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233c에서 내렸던 소피스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옮바로 얘기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즉 이런 입장에서는 다섯 megista gene에 상응하는 이데아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묻는 자는 맥락에 적합치 못한 물음을 물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소위 플라톤의 형상론과 <소피스트>편의 논의 사이에는 일정한 균열, 불일치가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가게 된다.³⁴⁾

가능한 한 존재의 문제를 배제하고 논리적 장치로 문제를 보려는 이 입장은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맥락과 존재의 영역을 분리시키면서 이것을 플라톤의 견해로 확정지으려 한다. 이런 해석노선은 모음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강력하게 시사된다. 문법에 관한 설명에서 자음과 자음을 이어 글자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결합끈으로서 모음의 기능은 형상들의 결합을 설명할 때에도 중요하다. 형상(이들의 표현으로는 개념 또는 용어)들의 결합을 말할 때는 두 용어의 결합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합도 포함하는 진술 내의 결합이고려된다.³⁵⁾ 이때 플라톤이 생각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대조되는 언어적인(verbal) 결합

32) D.Bostock, "Plato on 'is not'"

33) "change is not rest", "change is"와 같은 짹문장들.

34) 라일의 해석이 그러하다.

35) 자음과 자음을 이어주는 끈으로서 모음의 기능은 그것이 "C-A-T"의 경우와 같은 위치에 있든, "T-H-E", "M-E"에서와 같은 자리에 오든 그것이 덧붙여짐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있다. 플라톤이 모음에 부여한 역할을 단어의 수준을 넘어 확대해 보면, "개똥이가 달린다"나 "Burutus assassinated Caesar", "motion is not same"이나 "motion is"에서 동사 혹은 서술부분에서 찾게된다. 바로 이 해석가능성이 <소피스트>의 형상들의 결합, 변증술에 관한 논의를 자신들처럼 해석하게 해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끈 또는 분리요소였다는 것이다. 문장에서 동사는 문장안의 용어들을 결합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동사의 기능이 단어들의 경우에서의 모음의 기능과 유사하며 형상들의 결합에 관한 플라톤의 논의(즉 변증술)는 결합하는 용어, 분리시키는 용어에 의해 성립하는 진술의 성립을 다루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³⁶⁾

형이상학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구별하고 플라톤의 논의를 언어적인 것에 국한시키려 하는 해석경향은 플라톤에게서 유래하기보다는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관, 형이상학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은 개념을 통한 사고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의미의 조작이 존재의 계열에 우선한다거나 이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 점은 분석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변증법적 지식이 서술되는 곳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소피스트’의 규정과 관련하여 플라톤이 ‘무지한 모방에 의한 모상 제작’이라는 이데아를 놓았을 리 없다는 추측³⁷⁾에 근거하는 주장인 분석의 방법은 존재론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2) ‘존재론’에 대한 태도 - 오웬과 라일

플라톤의 후기 변증법에 관한 이상과 같은 해석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소피스트>편이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는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때의 ‘언어현상’은 특히 회합어의 *einai*동사, 영어의 *be*동사의 의미구분과 관련된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본문 부분은 254-259, 260-264이다. 동사의 의미구분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해석들 사이에는 <소피스트>편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 곳으로 향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미권의 전통에서 이를 해석은 오웬으로부터³⁸⁾ 영향받은 바가 큰 것 같다. 변증법 개념에 대한 후대의 해석들이 슈滕첼의 해석과 한번쯤 씨름하듯, *be*동사의 의미구분 문제를 다룰 때 오웬 이후의 해석가들은 그의 해석을 거의 빠짐 없이 거론하고 있다. 오웬의 해석은 *be*동사의 용법을 크게 완전한 용법(complete is)과 불완전한 용법(incomplete is)으로 나누고 존재사의 의미를 갖는 완전한 용법의 *be*동사는 형상들의 결합에 관한 텍스트의 이해에서 빼버리고 불완전한 용법의 의미만으로 이 곳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경향은 당시의 일반적인 철학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초기 분석철학의 반형이상학적 흐름을 가리킨다.

지금 살펴본 두 해석도 이런 흐름 내에서 진행된 해석이다. 이들의 입장은 오웬류의 생각을 <소피스트>전편의 논의로 확대시켜 복잡한 존재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고 텍스트를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들이 분석의 방법을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애매한 것들의 제거 과정이라고 파악하듯 이들의 철학관도 경제성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으로는 플라톤이 보여주는 바를 제대로 다 담을

36) 형상들의 결합을 일종의 predication 맥락에서 파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같은 해석의 기본틀을 *opsimatheis*의 주장과 또 이어지는 *grammatike*에 관한 구절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선 이들 구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megista gene*의 결합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37)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p. 125

38) “Plato on Not-Being”

수 없고 <소피스트>편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인 소피스트의 규정이 분석의 방법을 통해 시도되면서 변증술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다.

우리는 오웬류의 해석경향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형상들의 결합에 대한 논의를 해석할 때 오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한 라일의 해석에서부터 이런 철학 풍토속에서 읽혀진 플라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해석의 기본노선은 플라톤의 변증법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해하고 이것과 형상이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상이론의 근거가 부분적으로는 변증법이라는 것이다.

변증법은 보편적·편재적 개념, 공통적인 것에 대해 성립한다. 라일은 플라톤이 <소피스트>편에서 공통적인 개념을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 명제들 속에서도 유지되는 개념들(오늘날의 표현으로라면 '논리적' 개념들)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변증법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과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라일이 특수지에 관해 중립적이면서도 모든 특수지가 전제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개념을 변증법과 관련해 논의에 올린 것은 그가 소피스트편의 논의를 어떻게 파악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하도록 한다. 먼저 문장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진위치를 담지하는 최소단위, 인식이나 믿음, 추측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한 최소치는 문장이다. 명사 하나 혹은 동사 하나로 써는 어떤 것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동사를 하나의 명사와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명사, 동사는 각각 주어와 그 주어에 관한 모종의 주장을 가리킨다. 플라톤이 모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떤 형상들은 다른 형상들과는 달리 모음과 같은 형상, 즉 진리값을 갖는 개념들의 결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형상이 있다는 점이었다. 모음은 자신이 등장한 음절내에서 자음들을 결합하여 단일한 소리를 내거나 단어를 형성한다. 동사는 문장내에서 주장의 힘을 발휘하고 명사와 또 다른 부분들을 결합해서 참이거나 거짓을 말하게끔 한다. 소피스트편에서 가장 큰 형상들로 둑인 운동, 정치, 존재, 같음, 다름이란 형상의 특징은 그것들이 동사적 명사라는 데에 있다. 즉 문장속에서의 동사의 기능과 플라톤이 이 형상들을 통해 제시하려고 한 형상들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플라톤은 이미 명사가 하는 명명기능과는 확연히 다른 동사의 진술기능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피스트편에서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검토해본대로 언어의 의미와 존재의 문제를 데어놓고 변증술의 작업을 전자와 관련해서 다루려는 입장에서는 형상이란 말로써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바를 피하기 위해 이를 개념이나 용어와 같은 말로 번역하여 쓰기도 한다. '형상'에 대한 존재적 지위부여를 최소한 이곳에서만이라도 유보하고자 하기때문에 *megista gene*에서 '가장 큰'이란 말의 의미도 이 한계내에서만 검토하고 있고 이들을 특별한 지위의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

이런 해석전통은 변증법 개념을 다루면서 '형상'의 이해를 이전의 플라톤저작을 이해할 때와 다르게 함으로써 이곳에서 개진된 플라톤의 논의를 다른 것들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은 그런데 해석자의 선입견이나 관심이 투영된 효과이지 플라톤 자신의 해석주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문의 여러곳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변증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변증술의 실행을 통해 실제의 구조에 대한 앎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눔과 모음의 과정이 변증술의 작업으로 의미있게 이야기되는 것은 이 과정이 자의적인 분할이나 명명의 절차가 아니라 이미 실재에

있어서 특정하게 구조지워진 것을 그 구조에 따라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로고스”의 요청이,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에 대한 탐구는 제쳐놓은 채로 성립하는 문장의 논리적 메카니즘을 묻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글의 앞머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변증법이 규정되는 텍스트 구절들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도 본문의 논의들을 연결짓기 힘들다. 본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4. 변증법 - 체계적 방법을 통한 인식

<소피스트>의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 낼 수 있는 변증술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간의 실제, 대상 파악의 인식틀로서 작용하리라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53d이하에서 변증법을 규정하기에 앞서 본문의 대화자들은 변증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³⁹⁾

형상들도 서로 이와같이⁴⁰⁾ 섞인다는 데에 우리들이 동의했으니 이제 어떤 지식으로써 이야기(로고스)를 이끌고가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

지식, 그것도 아마도 가장 큰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증법은 플라톤에 의해 인간의 정신이 실재를 파악하고자 할때 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밟을 수 밖에 없는 사유의 통로로 제안된 것이다. 이 방법의 관심이 결합의 관계에 집중되었던 것은 실재의 존재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부분적인 것, 특수한 것을 규정하고자 기울었던 플라톤 초, 중기의 관심이 그런 부분들이 속해 있는 전체에 관한 관심으로 또는 전체속에서의 부분의 위치에 관한 관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형상들을 통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이 ‘전체에 관한 관심’이 <소피스트>편에서는 그것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의 열거, 서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에 의해 형성된 전체가 갖는 특정한 구조와 그것의 근거, 원인을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 일은 운동과 정지의 두 형상을 예로 삼아 보여준 존재, 같음, 다른의 형상과의 관계 및 이들 형상에 대한 규정으로 실행되었다.

가장 큰 형상들과 이들이 서로에 대해 맺는 관계는 건축물의 기초골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작업에서 바탕공사와 같은 것을 통해 세워지는 한 건축물의 골격이 각 부분들로 하여금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전체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끔하는 동시에 그것 역시 건축물내의 한 부분이듯, 가장 큰 형상들은 부분을 이루는 형상들이 전체속에서 맺는 특정한 관계의 근거인 동시에 이들 형상 자신이 그 관계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큰 형상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이같은 이중성은 가장 큰 형상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여타의 형상들과 구별되는 어떤 자리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심을 덜어준다.

39) 253b8-10

40)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결합하고 일부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다음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언명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소피스트> 전편에 걸쳐 플라톤이 취하는 전략은 파르메니데스에서 문제되었던 “비존재”를 “다름”이라는 방향으로 비켜감으로써 극복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형상 다름이 논의 전면에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모든 논의가 전반적으로 여기로 향해 있다는, 이 대화편을 통해 플라톤이 하고자 했던 바가 존재 또는 그것의 모순으로서의 비존재를 시사하지 않는, 따라서 그 역시 ‘me on’으로 의미있게 말해질 수 있는 ‘다름’으로서의 ‘me on’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거나 가장 핵심에 놓이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해석은⁴¹⁾ 일정한 정도의 수정 내지 보완이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생각이었다.

변증법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me on’과의 동치로서 ‘다름’을 설명하는 것에서 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 변증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제시된 나눔과 모음의 방법은 인식의 가능성이 탐색되고 인간의 지적 능력 자체가 반성의 대상이 될 때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문에서 그 자신도 이 두 과정을 거쳐 성립한 가장 큰 형상들, 특히 존재, 같음, 다름은 무엇보다도 변증법적 방법으로써야 가능해지는 모든 인식의 단위, 기준의 역할을 하며 이런 점에서 이들을 크다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Platon, *Phaedros* in : *Platon Werke in Acht Bänden Griechisch und Deutsch* (hrsg. von G. Eigler, Darmstadt 1970)
- Platon, *Politikos*
- Platon, *Sophistes*
- Ackrill, J.L., "Plato and the Copula : Sophist 251 - 259"(1957), rp. in :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ed. by R.E. Allen, 1965)
- Bambrough, R., "The Disunity of Plato's Thought - or: What Plato did not say", *Philosophy* XLVII, 1972.10.
- Bluck, R.S., *Plato's Sophist* (ed. by G. Neal, Manchester U. P., 1975)
- Bluck, R.S., "Forms as Standards", *Phronesis* 2, 1956
- Bostock, D., "Plato on 'Is Not'(Sophist 254-9)",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II, 1984
- Cornford, E.M.,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1935)
- Crombie, I.M., *An Examination of Plato's Doctrines* vol. II (London, 1963)
- Descartes, R., *Discourse on the Method of Rightly Conducting the Reason* (1637) in :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vol. I (trans. by E.S. Haldane

41) 슈텐첼을 위시해서 콘포드, 크롬비(I.M.Crombie) 등의 해석서 및 많은 연구 논문들이 동의하는 견해이다.

- & G.R.T. Ross, Cambridge U. P., 1931)
- Descartes, R.,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 (1664) in :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vol.1 (trans. by E.S. Haldane & G.R.T. Ross, Cambridge U. P., 1931)
- Fraassen, B.C. van, "Logical Structure in Plato's Sophist", *The Review of Metaphysics*, 1969
- Gomez-Lobo, A.,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the Sophist 253d1 - e2", *Phronesis* 22, 1977
- Gomez-Lobo, A., "Dialectic in the Sophist : A reply to Waletzki", *Phronesis* 26, 1981
- Gosling, J.C.B., *Plato* (London, 1973)
- Griswold, Jr., C.L., *Self-knowledge in Plato's Phaedrus* (Yale U. P., 1986)
- Hackforth, R., *Plato's Phaedrus* (Cambridge, 1952)
- Lloyd, A.C., "Plato's Description of Division" (1956), rp. in :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ed. by R.E. Allen, 1965)
- Marten, R., *Platons Theorie der Idee* (München, 1975)
- McDowell, J., "Falsehood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Language & Logos : Studies in Ancient Greek Phil.*, 1982
- Moravcsik, J.M.E. "Plato's Method of Division", *Patterns in Plato's Thought* (Dordrecht-Holland, 1973)
- Owen, G.E.L., "Plato on Not-Being" (1967), *Plato,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II (ed. by G. Vlastos, New York, 1971)
- Prior, W.J., "The Concept of Παραδειγμα in Plato's Theory of Forms" *Apeiron* XVII, 1983
- Reeve, C.D.C., "Motion, Rest, and Dialectic in the Sophist", *Archive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67, 1985
- Ross, W.D.,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1951)
- Runciman, W.G., *Plato's Later Epistemology* (Cambridge, 1962)
- Ryle, G., *Plato's Progress* (Cambridge, 1966)
- Ryle, G., "Letters and Syllables in Plato", *Philosophical Review* LXIX, 1960
- Stenzel, J.,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Darmstadt, 1931)
- Trevaskis, J.R., "The megista gene and the vowel analogy of Plato", *Phronesis* vol.11, 1966
- Trevaskis, J.R.,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Phronesis* vol.12, 1967
- Waletzki, W., "Platons Ideenlehre und Dialektik im Sophistes 253d", *Phronesis* 24, 1979